

이런 피서 때요!

가족과 함께 미술관 여행



◇더위에 지쳐 놓쳐버린 일상의 리듬을 가족과 함께 하는 미술관 여행에서 되찾아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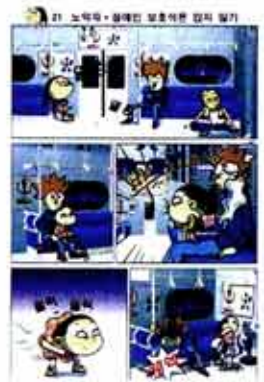


정명 스님 '연꽃전'

백상기념관 18~24일

연꽃공예가 정명스님이 18일~24일 서울 안국동 백상기념관에서 두 번째 '연꽃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에는 생화·조화·종이 연꽃 등 다양한 형태와 소재의 연꽃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낼 예정이다.

스님은 생화 연꽃과 달리 장시간 보존하기 힘든 생화 연잎을 특수처리해 전시 기간 내내 생생한 아름다움을 선보인다. 스님은 또한 봄·비니동산의 우수, 부다가야의 보리수, 구시나기라의 사리쌍수를 문헌을 토대로 재현하는 등 다양한 시도와 실험정신 가득한 작품들을 전시한다. ☎2338-0108



'에티켓 명랑만화'

월드컵 성공개최 기원

중단협, 사찰 등 배포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2002년 월드컵 성공개최를 위한 '에티켓 명랑만화'를 제작한다. 월드컵 명랑만화는 친철 질서 정직 협력 등 문화시민 4대 지표를 중심으로 100여 가지의 테마로 구성된다. 중단협 사무처장 법현스님은 "우리 국민들이 실천해야 할 내용들을 불교적 관점에서 표현해, 불교 포교와 국민 계도를 동시에 꾀하기 위해 준비했다"고 밝혔다.

종단협의회는 10만부를 1차 제작하여 11월부터 전국 사찰을 비롯하여 공공기관 터미널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김원우 기자

우연히 들른 미술관에서, 새로운 세계를 마주한 듯한 충격을 받았을 때의 느낌. 그것은 단순히 예술 작품에 대한 감흥을 넘어 삶의 지평을 넓히는 일이기도 하다.

더위에 지쳐 놓쳐버린 일상의 리듬을 주말

과거·현재 오가며 동·서양 그림감상 용도 마음도 '시원'

을 이용한 가족이 함께 떠나는 미술관 여행에서 되찾아보면 어떨까.

현대 한국화에서부터 조선시대 인물초상화, 20세기 서양 추상미술에 이르기까지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미술 전시가 곳곳에서 열린다.

● '한국현대미술의 전개-전환과 역동의 시대전': 1960년대 중반에서 1970년대 중반까지 한국현대미술의 흐름을 정리하기 위한 국립현대미술관의 기획전이다. 8월1일까지 제17전시실에서 당시의 주요 전시를 중심으로 선정된 50여 작가의 작품 160여점이 선보인다. 부대행사로 매주 작가와의 화상강연도 진행해, 미술관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당시의 미술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22188-6000

● '찾아가는 미술관-우리의 신화, 우리의 이야기전': 국립현대미술관이 전개하고 있는 찾아가는 미술관 7월 전시로 경남 창원 성산아트홀에서 20일까지 열린다. 우리의 신화와 우리의 이야기를 주제로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10점과 창원지역 작가 작품 40여점 등 총 140여점이 전시된다. ☎59239-3313

● '미술의 시작전': 성곡미술관이 세번째로 마련한 여름방학 기획전. 9월 2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시의 주제는 '현대미술 속으로 들어가자'이다. '전시'와 '교육'을 상호 연계해 구상단계부터 최종 완성단계까지를 관람객에게 보여주고, 작품의 구체적인 분석과 그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적 차원의 전시회다. 화가 오용길 씨 등 9명의 작가가 직접 수묵화, 회화, 사진, 조각, 목판화 등의 작품이 제작되는 과정을 통해 미술의 이해를 돕는다. ☎2737-7650

● '그리스 로마 신화전': 유럽 3대 고고학 박물관의 하나인 이태리 나폴리 고고학박물관 소장품, 회화, 항아리 등 진품유물 150여점이 선보인다. 서양문화의 바탕이 되는 그리스 로마 신화 이해에 도움을 주는 전시로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9월 30일까지 계속된다. ☎2597-2230

● '티베트 불교미술전': 최근에 문을 연 전남 보성 대원사 티베트불교미술관에는 주지 현장스님이 13년간 티베트와 중국, 몽골 등지를 순례하면서 수집한 티베트불교미술품 600여점이 전시된다. 티베트 탱화와, 만다라, 불상, 밀교경전, 법구 등 쉽게 접할 수 있는 티베트불교미술품을 감상할 수 있다. ☎61852-1755

● '인물화가 채용신전': 덕수궁미술관은 조선시대 마지막 인물화가인 석지 채용신의 작품 60여점을 8월 26일까지 전시한다. 채용신 탄생 150주년을 맞아 열린 이 전시는 양반 초상화로 이름을 날린 화가의 발자취를 재조명하는 자리다. ☎2779-5310

● '20세기 추상미술의 빛과 울림전': 8월 15일까지 갤러리현대와 조선일보 미술관에서 분산 개최되는 추상미술 전시회로 프랑스의 화상 드니즈 르네가 선정한 작품 80여점이 선보인다. 몬드리안, 알렉산더 칼더 등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734-6111

● '디아나의 노래전': 문예진흥원 미술회관은 디지털과 아날로그라는 두 방식으로 미래 예술의 나아가길 모색하는 '디아나의 노래전'을 29일까지 연다. 30대~50대에 이르는 14명의 신예 작가가 참여해 다양한 매체로 두 방식의 대화를 시도한다. ☎27604-4562

이은자 기자 eew@buddhapia.com

만다라 어떻게 만들까

통도사 성보박물관 '티베트 특별전'

8월 5일까지 만다라 제작 시연

통도사성보박물관이 개최하고 있는 '티베트 특별전'에서 초록, 흰, 빨, 파, 노란색 등 네 명의 티베트 스님들이 국내에서 접하기 힘든 만다라 제작 과정을 직접 보여 주고 있다.

8일부터 오는 8월 5일까지 한 달간 이어지는 이번 만다라 제작 시연은, 밀교 특유의 의식과 만다라 제작과정을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다. 통도사성보박물관 중앙홀에서 매일 오전 9시~10시 예불의식을 봉행하고, 10시30분~11시 30분까지 버터연꽃으로 제작하는 만다라 제작과정을 선보인다. 오후 1시 30분

~4시30분까지는 석재를 이용한 만다라 제작 시연을 한다.

만다라(曼荼羅, mandala)는 산스크리트어로 '원' 또는 '구획'이라는 뜻으로, 본질을 표현한 도상을 가리키는데, 건축설계의 평면도나 천체도처럼 보이는 기하학적인 그림이다. 만다라는 3단계로 된 붓다의 땅 또는 붓다의 영역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수행자 자신의 깨달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전통 만다라에서는 황금과 산호, 진주 등 적·청·황·녹·백의 다섯가지 귀한 재료를 썼지만 요즘은 그같은 값비싼 재료 대신 옥석 가루에 색을 입혀 사용한다.



◇통도사성보박물관 중앙홀에서 석부를 이용해 만다라를 제작중인 티베트 스님.

너비 1.2m 크기 8각형의 단 위에 티베트 현지에서 가져온 옥석 가루와 버터로 만다라를 표현한다. 버터는 꽃이 귀한 티베트에서 부처님께 버터로 꽃모양을 빚어 바쳤던 데서 유래한다. 물감과 붓을 사용해 만드는 만다라가 아니라, '픽부'라는 길이 30cm 정도의 원추형 대롱을 통해 옥석가루를 조금씩 흘리는 작업으로

조금만 호흡이 흐트러지면 가루가 날려 그림이 망가지기 때문에 여간 어려운 작업이 아니다.

모든 업장의 소멸과 함께 다시 무(無)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살려, 원래 옥석가루로 만든 만다라는 완성과 동시에 다 쓸어 없애버리지만, 박물관 측은 전시를 위해 완성된 만다라를 보존할 계획이다. ☎59382-1001

김홍근이 쓰는 문학 속의 불교



불교는 매우 현실적인 종교다. 문제의 출발점을 거창한 형이상학적인 주제보다, 지금 이 순간 각자가 겪고 있는 현실 속의 고통에 둔다. 부처님은 이것을 화살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였다. 어느 장수가 전쟁터에서 화살을 맞았다. 부하들이 주위를 둘러싸자, 그 자신의 몸에서 화살을 뽑는 대신 그들과 토론을 벌였다. 과연 그 화살을 누가 쏘았는지, 그 공사가 어느 카스트 계급에 속하는지, 어느 방향에서 날아왔는지, 화살의 재료가 무엇인지, 길이는 얼마나 되는지... 그는 이런 논쟁을 벌이다 결국 죽고 말았다. 우리가 이렇게 엉뚱한 문제에 사로잡혀 인생을 헛되이 살고 있는지 모른다. 반면 부처님은 우리에게 화살을 뽑는 시급한 일을 먼저 하라고 가르친다. 그 화살은 우리의 마음에 박힌 채 고통을 안겨주는 '자아(自我)'이다. 따라서 고통은, 역설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화살을 뽑게 만들어 해탈에 이르게 하는 문이기도 하다.

인간의 고통은 어디서 오는가? 잘 알다시피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오는데, 구체적으로는 자아의 속성인 탐진치 삼독에서 온다. 탐은 탐욕(貪慾)이며, 진은 진애(瞋), 치는 우치(愚癡, 어리석음)라고 일반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말들은 대개 추상적으로 들리기 쉬우므로, 지금 내가 처한 현실 속의 문제로 대입하여 생각해 봐야 한다. 예를 들어, '탐은 음식문제, 진은 인간관계, 치는 남녀문제'로 해석하면 훨씬 더 피부에 와 닿는다. 도시생활을 하면서 매일 겪는,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 좀 안 먹고 살수는 없나', '사사건건마다 동료, 선배와 부딪히는 스트레스' 그리고 '자본주의 상업사회에서 상품화된 성(性)의 유행과 격에 노출되어 있는 정신의 허약함'은 정말 남의 일이 아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성숙(成熟)을 불문하고 남녀관계의 성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모두들 태연히 살고 있지만, 이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작은 가시가 되어 각자의 양심에 박혀 있기가 쉽다. 탐심과 진심에 비해 치심은 상대적으로 덜 예민한 것 같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일수록, 그로 인한 괴로움은 더 강하게 나타난다. 이것은 김성동의 소설 <꿈>의 주인공 능현에게도 마찬가지이다. 김수성 예민한 20대의 수화 능현은 어느 날 출현해 나타나 말을 걸어온 여대생 앞에서 존재의 근본적인 흔들림을 겪는다.

능현의 흔들림은 다분히 작가 자신이 체험한 것으로, 그가 책머리에서 밝힌 것처럼, 그 흔들림이 곧 소설가 자신의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였다. 이제 50대 중반에 들어선 작가는 소설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결정짓는 그때 그 사건을 차분히, 때론 격정적으로 반추한다. 남녀 문제가 우리 각자와 무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화 시절 이 문제를 꺼내고 정면으로 충돌한 작가의 생생한 체험이 공명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수화는 자신의 마음과 화살의 비유를 통해, 사물과 사물을 대입하여 생각하기 위해서 만사를 제치고 정직하게 자신의 '치심(痴心)'과 맞대결을 벌였던 것이다. 그리고 20년도 훨씬 더 지난 지금, 그 체험을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승화시켜 우리 앞에 내놓았다. (계속)

문예평론가 김성동 '꿈' (2)

고통 없애려면 몸에 박힌 '화살' 부터 빼자

김성동 '꿈' (2)

고통 없애려면 몸에 박힌 '화살' 부터 빼자

고통 없애려면 몸에 박힌 '화살' 부터 빼자

고통 없애려면 몸에 박힌 '화살' 부터 빼자

고통 없애려면 몸에 박힌 '화살' 부터 빼자

고통 없애려면 몸에 박힌 '화살' 부터 빼자

고통 없애려면 몸에 박힌 '화살' 부터 빼자

고통 없애려면 몸에 박힌 '화살' 부터 빼자

고통 없애려면 몸에 박힌 '화살' 부터 빼자

고통 없애려면 몸에 박힌 '화살' 부터 빼자

고통 없애려면 몸에 박힌 '화살' 부터 빼자

고통 없애려면 몸에 박힌 '화살' 부터 빼자

고통 없애려면 몸에 박힌 '화살' 부터 빼자

고통 없애려면 몸에 박힌 '화살' 부터 빼자

고통 없애려면 몸에 박힌 '화살' 부터 빼자

고통 없애려면 몸에 박힌 '화살' 부터 빼자

고통 없애려면 몸에 박힌 '화살' 부터 빼자

고통 없애려면 몸에 박힌 '화살' 부터 빼자

고통 없애려면 몸에 박힌 '화살' 부터 빼자

고통 없애려면 몸에 박힌 '화살' 부터 빼자

고통 없애려면 몸에 박힌 '화살' 부터 빼자

고통 없애려면 몸에 박힌 '화살' 부터 빼자

고통 없애려면 몸에 박힌 '화살' 부터 빼자

고통 없애려면 몸에 박힌 '화살' 부터 빼자

고통 없애려면 몸에 박힌 '화살' 부터 빼자

고통 없애려면 몸에 박힌 '화살' 부터 빼자

고통 없애려면 몸에 박힌 '화살' 부터 빼자

고통 없애려면 몸에 박힌 '화살' 부터 빼자

고통 없애려면 몸에 박힌 '화살' 부터 빼자

불교 TV가 정성들여 준비한 삼베명품전

孝道佛事



₩1,400,000

극락왕생복 특별할인가 (남·여) 각 1,120,000원
스님들의 수도도 갖고 있습니다.



수분흡수와 방습기능은 일반면의 4배, 무릎이나 괴혈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30,000원

삼베양말 특별할인가 (남·여) 각 1set(6족) 20,000원



₩20,000원

삼베목수건 특별할인가 1개 10,000원 / 크기 24cm(너비)x282cm(길이)

삼베목수건은 직물성질유와 동물성질유의 장점을 살려 제작해 삼베특유의 사각사각한 느낌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불교텔레비전주식회사

서울마포구 마포동 418 금호전기빌딩
대표전화: 02-3270-3300 팩스: 02-3270-3498



• 불교TV 후원의 전화 : ARS(02)700-1032(한 통화에 2,000원의 후원보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불교TV 시청 방법 : 전국 각 지역의 종합유선방송(SO)에 연락하여 신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주문전화(불교TV사업부)

02-3270-3366~7